

농촌 마을에서 그린 맵(Green Map) 적용의 효과성 및 제안점

농촌 마을 그린 맵 제작과 시사점

2013. 12. 14

연구자: 혜천대학교 김대현

제 출 문

충남발전연구원장 귀하

귀 연구원이 지원한 2013년도
충남발전연구원 연구지원사업의 결
과물을 제출합니다.

2013년 12월 14일

제출자: 혜천대학교 도시환경조경과 김대현 (인)

농촌 마을에서 그린 맵(Green Map) 적용의 효과성 및 제안점

농촌 마을 그린 맵 제작과 시사점

김대현

혜천대학교 도시환경조경과

■ 한글요약

우리나라 농촌은 도시보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나 그 곳에 거주하는 인구수는 매우 적게 분포하고 있으며, 고령화, 인구감소, 소득 감소와 공공서비스의 저하 등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따라서 국토의 효율적 이용과 농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소득 증대의 일환으로 농촌마을 그린맵 도입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설문조사 결과, 도시민은 자연 자원에 대한 선호는 매우 높았다. 그러나 농촌 방문을 통한 조사한 결과, 자연 자원에 대한 도출은 매우 어려웠다. 이는 지금까지 마을 주민이 개발에만 정진해왔지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가치를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대부분이 파괴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따라서 국가는 농촌다움을 보전하기 위한 재정 지원과 주민교육을 병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고 있는 방법을 통한 농촌마을 그린맵은 차후 농촌 마을의 개발을 위한 농촌계획 및 환경계획의 밑바탕으로 적용 가능하리라 사료되며, 농촌마을 홍보와 녹색관광을 통한 소득향상 그리고 농촌마을에 대한 애향심 고취 등을 통해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1. 서론

세계 300여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는 면적으로 보면 70위 정도이나 인구로 보면 15위 내외로 국토면적에 비해 도시지역에 전체인구의 80%가 밀집해 있기 때문에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측면에서 농촌의 개발이 필요하다(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05). 이러한 농촌은 식량공급 기능을 통해 형성되는 본원적 가치(농·축·임·수산물의 생산, 가공, 유통, 판매 등)와 비식량 공급기능을 기반으로 한 다원적 가치(환경보전, 문화계승, 경관제공, 여가 및 관광 등)를 보유한다(남지호, 2010) 이처럼 농촌은 농촌자연물, 인공물, 토지이용형태 등의 농촌자원요소로 구성된 체계적인 구조이며, 이 구조를 기반으로 농업생산,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 공간 및 장소, 수자원 공급 등의 복합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이러한 다양한 기능은 최종적으로 농촌의 가치로 창출되는 것이다. 즉 농촌 자원의 가치는 결국 그 구조와 기능에 기인하기 때문에 구조와 기능의 변화에 따라 그 가치 역시 변화하게 된다.

한편, 우리나라 농촌인구는 2000년 20.3%에서 2005년 18.5%로 계속 감소하고 있으며, 65세 이상 인구비율도 2005년 18.6%로 초고령 사회로 진입하였다. 이러한 인구감소와 고령화로 인해 농촌사회 전반의 활력이 저하되고 공공 및 민간 서비스의 질의 저하를 초래하고 있으며, DDA 협상 및 FTA 협상으로 인한 농산물 수입개방 등으로 농촌의 불안과 위기감이 증폭되어 살기 어려운 장소로 인식되어 버렸다(김영준, 2006).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농촌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농촌소득 향상과 살기 좋은 장소로 만들기 위해 농촌 어메니티와 농촌 관광(그린 투어리즘)에 대한 보전과 개발정책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김대식 등, 2005). 특히 농촌관광의 활성화는 농촌주민 소득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데 이를 위해 수요자에 해당되는 도시민의 농촌방문 가능성을 확대하는 새로운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즉 수요의 확대 및 농촌방문의 가능성으로는 농촌에 잠재된 에메니티 자원을 소개하고 홍보하는 효과적인 매체의 개발과 제작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농촌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농촌의 소득을 높이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농촌관광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목적 아래, 도시민이 농촌마을을 쉽게 접근하기 위한 매체로써 농촌마을 그린맵을 제작하고 그 시사점을 언급하는데 목표를 두고 진행하였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물은 차후 농촌마을의 개발을 위한 농촌계획 및 환경계획의 기초자료로서 역할하리라 생각하며, 농촌마을 그린맵 제작을 통해 해당 농촌마을 홍보와 녹색관광을 통한 소득향상 그리고 농촌마을에 대한 애향심 고취를 통한 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관련이론

본 연구의 목표와 관련된 핵심내용은 그린맵과 어메티니 자원이다. 이에 대한 정의 및 구체적인 내용을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2.1 그린맵(Green Map)이란?

1992년 뉴욕의 웬디 브로어(Wendy Brawer)는 사람들이 그들이 살고 있는 도시와 환경 그리고 도시속의 지속가능한 자원들에 관심을 갖게 하기 위해 뉴욕시 그린 애플맵(The Green Apple Map)을 만들어 배포하면서 그린맵은 시작되었다. 그리고 1995년에는 세계적으로 통용될 그린맵 아이콘(부록1 참조)을 소개함으로써 코펜하겐, 교토 등을 시작으로 전 지구적으로 알리는 계기가 마련되었다.

그린맵은 일반정보가 아닌 ‘그린’이라는 특별한 정보를 모은 지도이다(부록2 참조). 이는 거주민과 방문객들이 지역의 대중교통수단은 물론 건강에 좋은 지역자원과 환경친화적 업체, 에너지절약빌딩, 역사·문화적으로 의미 있거나 자연을 즐길 수 있는 장소를 쉽게 발견할 수 있도록 돕는다. 즉, 시대가 요구하는 각종 환경정책을 일반인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종합한 지도라고 할 수 있다(황기원과 황윤희, 2001).

현재, 세계 56개국의 나라의 740여개의 도시와 마을, 학교 등이 참여하고 있으며 550부가 넘는 그린맵이 제작·인쇄되어 500만주의 그린맵이 온라인으로 출간되었고. 전 세계적으로 140여개의 국가가 greenmap.org를 사용하고 있으며 매년 30%의 그린맵 프로젝트들이 진행되고 있다(<http://www.greenmap.kr>).

2.2 농촌마을 그린맵이란?

일반 전문적인 지도 및 관광지도가 전문가에 의해 만들어 지는데 반해서 그린맵은 주로 거주자들에 의해 만들어지고, 내용 또한 지역의 숨겨진 장소, 스토리가 있는 곳, 자랑거리 그리고 경치가 아름다운 곳과 같은 조금 더 소소한 생활적인 곳을 소개한다. 그린 맵의 활동을 통해 지역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주변 이웃과의 교류를 유도하고 참가자들의 관심사항에 대한 정보를 얻어내어 지역에 대한 애향심을 도출해 낼 수 있다.

현재, 우리의 농촌은 인구감소 및 고령화 그리고 공공 서비스의 부족으로 심한 몸살을 앓고 있다. 이에 정부는 지역의 균형발전과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 농촌을 문화적으로 품격 있고 쾌적한 삶의 질이 보장되는 공간을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정부의 각 부처와 지자체에서는 농촌을 대상으로 지역의 발전과 소득향상 그리고 경관개선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을 통한 농촌계획 시 기초로 삼거나 이를 마을의 관광 및 홍보 매체”로 이용 가능하다. 농촌마을 그린맵이란? 바로 이러한 목적을 두고 만들어진 지도를 말한다.

2.3 어메니티 자원이란?

어메니티란? 라틴어의 ‘amoentia’의 사랑 좋아함을 의미하며, 단수 ‘amenity’는 유쾌성이나 쾌적성, 매력성 등을 뜻하고, 복수 ‘amenities’는 쾌적함을 제공하는 환경 그 자체로 정의 된다(최수명, 2001). 따라서 어메니티의 개념은 일반적으로 쾌적함, 살기 좋음 등의 뜻으로 해석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그 의미가 충실히 전달할 만한 한글 단어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통의 인간이 기분이 좋다고 느끼는 환경의 상태라고 할 수 있다(김승환 등, 1991).

어메니티 용어의 시작은 18세기 후반 영국에서 도시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나타난 도시환경 악화의 문제를 해결하자는 ‘어메니티 운동’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어메니티 운동’이란 인간적 삶에 필요한 환경을 갖추는 운동이라 정의할 수 있다(오현석 등, 2002) 어메니티 경제학에서는 어메니티를 “a location-specific good” 곧 위치재 혹은 장소재로 정의하듯이, 어메니티 자원은 토지가 지닌 감성적, 생태적, 인문적 가치를 인간의 감지 작용에 의해 받아들이는 유·무형의 자원 즉 지감(地感)자원이라 할 수 있다(이상문, 2006).

2.4 농촌 어메니티 자원이란?

농촌 어메니티란? 농촌 고유의 장소나 상황에서 나타나는 아름다움, 쾌적한, 즐거움, 건강함, 풍요로움, 친밀감 등 인간에게 긍정적인 감성과 인식을 불러일으키는 환경적 속성을 말한다(이상문, 2006). 그리고 농촌 어메니티 자원이란? 어메니티의 특성, 즉 생태적, 심미적, 인문적, 가치가 농촌의 사회적 상황과 외부적 수요에 의해 외주경제의 형태로 공익을 제공하거나 내부경제화의 원리에 의해 사익을 창출하는 유·무형의 자원일체를 지칭한다(Diamond & Tolley, 1982).

OECD(1999)에서는 자원의 인적 기여도에 따라 어메니티 자원을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즉, 인간의 간섭이 배제된 원생에 가까운 자연적 자원, 인간과 자연의 상호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자원, 인간이 순수하게 만들어낸 인공적 자원 등으로 구분하였다. 이를 참고하여 박창석 등(2002)과 조순재(2003)는 농촌의 어메니티 자원을 자연적 자원, 문화적 자원, 사회적 자원 구분하였다. 자연적 자원은 환경오염과 관련된 질적인 개념인 환경수준(대기, 수질,

소음 등)과 이용대상으로서 물, 녹지 등의 자연자원이며, 문화적 자원은 농촌마을이 지닌 고유한 역사자원(사적, 문화재 등)과 경관자원(생산, 주거지 등)을 총칭하며, 사회적 자원은 농촌생활의 편안함이나 안락함을 제공하기 위한 시설자원(마을화관, 공동창고 등)과 인간 활동이 중심이 되는 경제활동자원(도농교류센터, 마을 홈페이지 등) 및 공동체 자원(축제, 친목계 등)을 말한다.

3. 연구방법

3.1 주요 연구내용

본 연구는 빠른 속도로 황폐화 되어가고 있는 농촌의 개선과 무분별한 지역개발로 사라져 가는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보전을 위해 일부 도시에 한하여 사용되어 오던 그린맵을 농촌 마을에 적용하여, 마을의 환경자원 발굴과 지역의 보물을 찾아내고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농촌 관광을 통한 농가 소득을 유발할 수 있는 매체로서 농촌마을 그린맵 제작 및 기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연구내용 목차는 다음과 같다.

- ① 도시민이 선호하는 농촌마을 어메니티 그린맵 형태 조사
- ② 농촌마을 그린맵에 포함해야 할 농촌 어메니티 자원 내용 파악
- ③ 농촌마을 그린맵 제작 및 기법 제시

3.2 설문 조사 내용 및 조사 대상자

도시민 40명(표 1.참조)에게 선호하는 농촌 어메니티 그린맵 형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우선 일반지도, 위성지도, 약도지도의 3가지 형태를 만들어 일반인의 선호도를 조사하였다. 그리고 선호하는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내용을 알아보기 위해서 그린맵 제작시 적용하는 자원의 내용을 설문지에 적어 “농촌마을에서 찾아보고 싶은 자원이나 지도에 표현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을 20가지 내외로 체크해 달라”고 질문을 하였다. 설문지에 표현된 어메니티 자원은 지속가능한 삶 자원 분야에서 42개 자원, 자연 자원 분야에서 33개 자원, 문화와 사회 자원 분야에서 47개 자원, 총 122개 자원이다(부록 3 참조).

표 1. 설문조사 대상자의 인구통계적 분포

연령	남·녀수	인원수
20대	남: 2	10
	여: 8	
30대	남: 6	10
	여: 4	
40대	남: 4	10
	여: 6	
50대	남: 3	10
	여: 7	
합계(남:15명, 여:25명)		40

3.3 농촌마을 그린맵 제작을 위한 대상지

도시민이 선호하는 농촌자원이 농촌마을에서 쉽게 찾아지는지? 혹은 농촌마을 대상으로 그린맵을 제작할 경우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농촌마을 3곳을 대상으로 그린맵 제작을 시도해 보았다. 대상지는 비교적 테마가 있는 관광 및 테마형 농촌으로 규모가 아담하고 주변의 마을과 연담화 되지 않는 독립된 마을들이다

1) 바리실 마을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 일원에 위치한 마을로서 동쪽에는 발군산이 주봉을 이루면서 조정천의 유역에 넓은 들이 조성되어 비교적 평야지대를 이루는 곳에 위치한다. 조선시대 말기에는 금산군 동일면의 지역으로서 지형이 바리처럼 되었으므로 바리실로 불리워졌던 지역인데, 1914년 행정구역 개혁 때에 구상리, 구억리 일부를 병합하여 명곡리라 하였다. 전라북도 금산군 제원면에 편입되었다가 1963년 1월 1일 행정구역 개편으로 충청남도에 편입, 충청남도 금산군 제원면 명곡리가 되었다. 면적은 6.8km²에 인구는 530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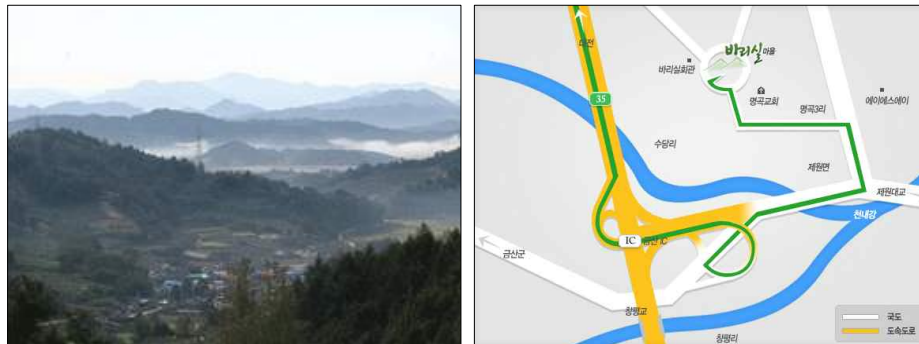


그림 1. 바리실 마을 전경 및 주변 교통도

2) 알프스 마을

충청남도 청양군 정산면 천장리에 위치한 마을로서 칠갑산 바로 아래 칠갑 산기슭에 자리잡은 마을로 천장처럼 높다는 뜻으로 천장리라 하며 아름다운 천장호수와 더불어 천장리 알프스 마을로 불리고 있다. 마을에는 칠갑산 등산로와 천장호수를 가로지르는 국내 최장의 천장호 출렁다리, 도·농교류센터, 웰빙체험농원이 있으며 칠갑산 얼음분수축제와 조롱박축제가 열리는 마을이다. 인구수는 103명(남 50, 여53)이며, 한 해 관광객 수가 20만 명에 이른다.



그림 2. 알프스 마을 전경 및 주변 교통도

3) 벌랏 한지마을

충북 청원군 문의면 소전1리에 위치한 마을로서 임진왜란 때 피난와 화전하며 생계를 영위한 곳으로 닥나무로 한지를 생산하는 마을이었으며 잡곡과 과일이 풍성하였고 대청댐이 생기기 전 벌랏 마을의 주요 교통수단은 배였으며, 벌랏 나루터는 마을의 입구였다. 벌랏이라는 지명은 마을전체가 골짜기로 발달되어 주위가 대부분 밭이고 논은 거의 없는 마을이며 수몰 전 금강의 벌랏 나루터가 있어 지금의 벌랏 마을로 불리어진다고도 한다. 이곳은 자연환경보전 지역의 수자원보전지역으로 신축된 건물이나 개발이 없이 자연과 인간이 조화롭게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에서 몇 없는 청정지역이며,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작고 소박한 마을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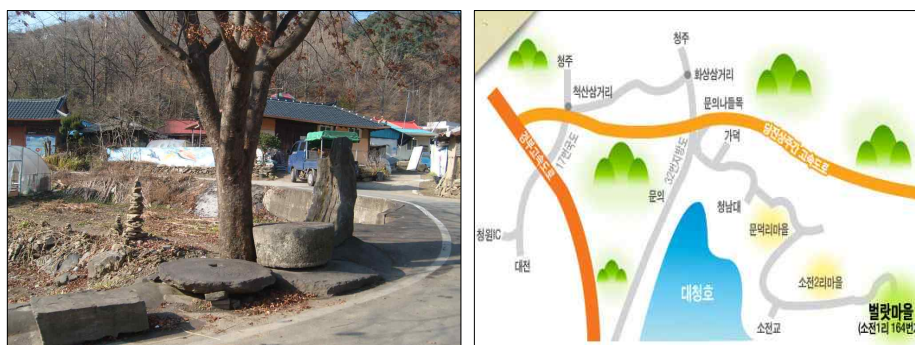


그림 3. 벌랏 한지마을 전경 및 주변 교통도

4. 연구결과

4.1 도시민이 선호하는 농촌마을 그린맵의 형태

농촌마을 그린맵 제작시 도시민이 선호하는 지도의 형태를 알아보기 위하여 농촌을 방문한 도시민 40명에게 위성지도(지도 1), 일반지도(지도 2), 인지도도(지도 3)를 밑바탕으로 제작한 농촌마을 그린맵의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도시 일반인은 인지도도를 선호(70%)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위성지도(30%)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표 2. 참조). 그러나 가독성이 부족했던 일반지도는 한명도 선택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농촌마을 그린맵 제작시 인지도에 근거한 인지도도와 위성지도를 조합하는 형태의 그린맵을 제작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판단된다.

표 2. 선호하는 농촌마을 그린맵 형태

구분	지도형태	빈도
지도 1	위성지도	12 (30 %)
지도 2	일반지도	0 (00 %)
지도 3	인지지도	28 (70 %)

4.2 농촌마을 그린맵에 표현해야 할 선호하는 농촌 어메니티 자원

도시민이 농촌마을을 방문시 관심있고 지도에 표시해야 할 어메니티 자원이 무엇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세계 그린맵 위원회(greenmap.org)에서 제시한 지역 자원의 내용을 나열하여 빈도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1) 연령대별 선호하는 농촌 어메니티 자원

농촌 관광에 비교적 활발히 참여할 것으로 생각되는 연령을 중심으로 20대, 30대, 40대, 50대로 나누어 농촌마을을 방문시 관심이 있고, 그린맵에 표시해야 할 어메니티 자원이 무엇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설문조사 내용을 구분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모든 연령대는 자연 부분 자원에 대한 선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어메니티 자원을 다양하게 선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자원에 대한 선택 빈도수는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0대의 주 관심 내용과 어메니티 자원은 유기농 직판장(빈도5), 태양에너지 설치장소(빈도6), 친환경 건물(빈도4), 옥상녹화 건물(빈도4), 자전거수리 및 대여소(빈도5), 자전거 도로(빈도5), 대중교통(빈도4), 해안 및 강변(빈도5), 가로수길(빈도5), 단풍명소(빈도5), 산림지역(빈도4), 보호수(빈도4), 야생동물 서식지(빈도4), 해돋이 및 해넘이 장소(빈도5), 야외스포츠 지역(빈도4), 강아지 놀이장소(빈도4), 캠핑장(빈도4), WIFI 지원장소(빈도8), 친환경 및 환경교육 공간(빈도4), 푸드뱅크(빈도8), 병원(빈도6), 유명식당 및 카페(빈도5) 등으로 22개 자원에 대한 총합 빈도수는 95로 조사되었다. 특히, 20대는 WIFI 지원장소(빈도8), 푸드뱅크(빈도8) 등에 높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30대의 주 관심 내용과 어메니티 자원은 생산물 직판장(빈도5), 유기농 직판장(빈도5), 친환경 농업장소(빈도4), 친환경 건물(빈도5), 대중교통(빈도5), 주차 및 환승시설(빈도4), 생태길 및 그린웨이(빈도7), 가로수길(빈도6), 해안 및 강변(빈도5), 산림지역(빈도7), 단풍명소(빈도5), 보호수(빈도4), 정원 및 농원(빈도4), 동물농장(빈도4), 해돋이 및 해넘이 장소(빈도6), 캠핑장(빈도5), 우수경관 조망장소(빈도5), 농촌공원(빈도4), 자연관찰로(빈도4), 전통마을(빈도6), 자연 친화적인 공간(빈도4), 기념장소 및 기념비(빈도4), 친환경 및 환경교육 공간(빈도5), 환경프로그램교육장소(빈도4), 병원(빈도4), 커뮤니티센터(빈도4), 유명식당 및 카페(빈도4), 공중화장실(빈도4) 등으로 28개 자원에 대한 총합 빈도수는 133로 나타났다. 특히, 30대는 생태길 및 그린웨이(빈도7), 산림지역(빈도7) 등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보인다.

40대의 주 관심 내용과 어메니티 자원은 생산물 직판장(빈도6), 건강식 제공장소(빈도6), 친환경 농업장소(빈도6), 유기농 직판장(빈도5), 녹색관광자원(빈도5), 친환경 건물(빈도7), 녹색 건물(빈도5), 친환경기술 적용장소(빈도4), 가로수길(빈도9), 해안 및 강변(빈도7), 미래개발지역(빈도6), 생태길 및 그린웨이(빈도5), 수경시설(빈도4), 친환경 조경지역(빈도4), 야생화 재배지(빈도7), 단풍명소(빈도7), 산림지역(빈도6), 정원 및 농원(빈도6), 보호수(빈도4), 야생허브 및 과일채집 장소(빈도4), 동물농장(빈도7), 자연관찰 산책로(빈도7), 농촌공원(빈도4), 캠핑장(빈도4), 우수경관 조망장소(빈도4), 해돋이 및 해넘이 장소(빈도4), 전통마을(빈도6), 역사장소(빈도5), 자연친화 장소(빈도5), 박물관(빈도4), 친환경 및 환경교육 공간(빈도6), 친환경모임 및 기관(빈도4) 등으로 32개 자원에 대한 총합 빈도수는 148로 밝혀졌다. 특히, 40대는 가로수길(빈도9), 해안 및 강변(빈도7), 야생화 재배지(빈도7), 단풍명소(빈도7), 동물농장(빈도7), 자연관찰 산책로(빈도7)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50대의 주 관심 내용과 어메니티 자원은 생산물 직판장(빈도6), 친환경 상품생산 및 기술전수 장소(빈도6), 지열 에너지 설치장소(빈도4), 대중교통(빈도8), 위험구역(빈도7), 주차 및 환승시설(빈도4), 가로수길(빈도8), 생태길 및 그린웨이(빈도7), 친환경 조경지역(빈도5), 해안 및 강변(빈도4), 수경시설(빈도4), 산림지역(빈도10), 단풍명소(빈도6), 정원 및 농원(빈도4), 야생화 재배지(빈도4), 야생 허브 및 과일채집 장소(빈도4), 동물농장(빈도9), 수중생물 서식지(빈도5), 야생동물 서식지(빈도4), 캠핑장(빈도9), 자연관찰 산책로(빈도8), 해돋이 및 해넘이 장소(빈도7), 우수경관 조망장소(빈도4), 박물관(빈도9), 기념장소 및 기념비(빈도7), 역사장소(빈도5), 마을 안내지도 및 안내판 설치장소(빈도9), 친환경 및 환경교육 공간(빈도4), 푸드뱅크(빈도4), 지속가능하지 않은 토지사용지역(빈도4), 공중화장실(빈도8), 유명식당 및 카페(빈도5), 에너지공급시설(빈도4), 종교기관(빈도4) 등으로 34개 자원에 대한 총합 빈도수는 200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50대는 산림지역(빈도10), 캠핑장(빈도9), 박물관(빈도9), 동물농장(빈도9), 마을안내지도 및 안내판 설치장소(빈도9), 대중교통(빈도8), 가로수길(빈도8), 자연관찰 산책로(빈도8), 공중화장실(빈도8), 위험구역(빈도7), 생태길 및 그린웨이(빈도7), 해돋이 및 해넘이 장소(빈도7), 기념장소 및 기념비(빈도7)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표 3. 연령대별 선호하는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빈도 분석표

연령대 자원구분		20대 (10명)	30대 (10명)	40대 (10명)	50대 (10명)
지속가능한 삶	녹색경제	4/5	1,4/5→3/4	1,2,3/6→4,12/5	1,5/6
	기술과 디자인	1/6→6,7/4	6/5	6/7→8/5→11/4	5/4
	이동수단	1,2/5→6/4	6/5→10/4	-	6/8→12/7→10/4
자연	대지와 물	1,11/5	5/7→11/6→1/5	11/9→1/7→9/6→5/5→2,10/4	11/8→5/7→10/5→1,2/4
	식물	7/5→1,2/4	1/7→7/5→2,4/4	6,7/7→1,4/6→2,9/4	1/10→7/6→4,6,9/4
	동물	1/4	10/4	10/7	10/9→4/5→1/4
	야외활동	12/5→3,8,9/4	12/6→9,11/5→1,4/4	4/7→1,9,11,12/6	9/9→4/8→12/7→11/4
문화와 사회	문화적 특성	-	11/6→16,18/4	11/6→9,16/5→2/4	2/9→18/7→9/5
	정보환경	6/8→1/4	1/5→5/4	1/6	4/9→1/4
	사회정의와 운동	7/8	-	2/4	7,11/4
	공공사업과 주요지형지물	7/6→12/5	7,11,12,13/4	-	13/8→12/5→2,9/4

주1) 4이상의 빈도를 보인 자원(3/30 표현에서 3은 자원명목, 30은 빈도수)을 나타냄

주2) 자원명목은 부록3을 참조

2) 남녀별 선호하는 농촌 어메니티 자원

남녀별 농촌마을을 방문시 관심 있고, 그린맵에 표시해야 할 어메니티 자원이 무엇이고, 차이는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4. 참조). 설문에 참여한 남자는 15명이고, 여자는 25명이어서 서로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어, 남자의 경우는 빈도수 5 이상, 여자의 경우는 8 이상의 빈도수를 보이는 어메니티 자원을 도출하였다.

남자 집단의 주 관심 내용과 어메니티 자원은 유기농 직판장(빈도11), 생산물 직판장(빈도9), 친환경 농업장소(빈도9), 친환경 건물(빈도9), 옥상녹화 건물(빈도5), 녹색건물(빈도5), 대중교통(빈도6), 주차 및 환승시설(빈도6), 생태길 및 그린웨이(빈도9), 가로수 길(빈도9), 해안 및 강변(빈도7), 수경시설(빈도5), 산림지역(빈도11), 단풍명소(빈도10), 보호수(빈도7), 정원 및 농원(빈도5), 동물농장(빈도7), 해돋이 및 해넘이 장소(빈도11), 자연관찰 산책로(빈도9), 캠핑장(빈도9), 농촌공원(빈도5), 공공장소 및 광장(빈도5), 우수경관 조망장소(빈도5), 전통마을(빈도6), 박물관(빈도6), 역사장소(빈도6), 자연친화 공간(빈도6), 기념장소 및 기념비(빈도6), 친환경 및 환경교육 공간(빈도7), 푸드뱅크(빈도6), 종교기관(빈도5), 공중화장실(빈도5) 등으로 32개 자원에 대한 총합 빈도수는 23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남자 집단은 유기농 직판장(빈도11), 산림지역(빈도11), 해돋이 및 해넘이 장소(빈도11), 단풍명소(빈도10)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여자 집단의 주 관심 내용과 어메니티 자원은 생산물 직판장(빈도 15), 친환경 상품생산 및 기술전수 장소(빈도13), 유기농 직판장(빈도11), 태양에너지 설치장소(빈도9), 친환경 건물(빈도9), 대중교통(빈도15), 주차 및 환승시설(빈도8), 위험구역(빈도8), 가로수길(빈도19), 해안 및 강변(빈도14), 생태길 및 그린웨이(빈도13), 산림지역(빈도16), 단풍명소(빈도13), 야생허브 및 과일채집 장소(빈도13), 정원 및 농원(빈도12), 야생화 재배지(빈도10), 동물농장(빈도16), 야생동물 서식지(빈도10), 캠핑장(빈도15), 해돋이 및 해넘이 장소(빈도13), 자연관찰 산책로(빈도11), 우수경관 조망장소(빈도10), 박물관(빈도13), 기념장소 및 기념비(빈도11), 예술공간(빈도10), 친환경 및 환경교육 공간(빈도12), 마을 안내지도 및 안내판 설치장소(빈도12), WIFI 지원장소(빈도9), 푸드뱅크(빈도10), 유명장소 및 카페(빈도13), 병원(빈도12), 공중화장실(빈도11) 등으로 32개 자원에 대한 총합 빈도수는 352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여자 집단은 가로수길(빈도19), 산림지역(빈도16), 동물농장(빈도16), 생산물 직판장(빈도15), 대중교통(빈도15) 등에 대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표 4. 남녀별 선호하는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빈도 분석표

남녀별 자원구분		남자 집단 (15명)	여자 집단 (25명)
지속가능한 삶	녹색경제	4/11→1,3/9	1/15→5/13→4/11
	기술과 디자인	6/9→7,8/5	1,6/9
	이동수단	6,10/6	6/15→10,12/8
자연	대지와 물	5,11/9→1/7→2/5	11/19→1/14→5/13
	식물	1/11→7/10→2/7→4/5	1/16→7,9/13→4/12→6/10
	동물	10/7	10/16→1/10
	야외활동	12/11→4,9/9→1,2,11/5	9/15→12/13→4/11→11/10
문화와 사회	문화적 특성	11/9→2,9,16,18/6	2/13→18/11→3/10
	정보환경	1/7	1,4/12→6/9
	사회정의와 운동	7/6	7/10
	공공사업과 주요지형지물	9,13/5	12/13→7/12→13/11

주1) 남자 5이상, 여자 8이상의 빈도를 보이는 자원(3/30 표현에서 3은 자원명목, 30은 빈도수)을 나타냄
주2) 자원명목은 부록3을 참조

3) 전체적으로 선호하는 농촌 어메니티 자원

설문 대상자 전체에 대해 농촌마을을 방문시 관심이 있고, 그린맵에 표시해야 할 어메니티 자원이 무엇인지 알아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표 3. 참조).

도시민은 일반적으로 자연 부분의 자원(빈도473)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으로 문화와 사회 부분의 자원(빈도 359), 지속가능한 삶 부분의 자원(빈도 292)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자연 부분에서는 야외활동 부분의 자원(빈도143) 그리고 대지와 물 부분의 자원(빈도142), 식물 부분의 자원(빈도118)이 많이 선택되었으며, 문화와 사회 부분에서는 문화적 특성 부분의 자원(빈도137),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 부분에서는 녹색경제 부분의 자원(빈도115)을 많이 선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민의 주 관심 내용과 어메니티 자원은 생산물 직판장(빈도24), 유기농 직판장(빈도 22), 녹색기업(빈도17), 친환경 상품생산 및 기술전수 장소(빈도15), 건강식 제공 식당(빈도 12), 친환경 건물(빈도18), 녹색건물(빈도12), 대중교통(빈도21), 주차 및 환승시설(빈도14), 가로수길(빈도28), 생태길 및 그린웨이(빈도22), 해안 및 강변(빈도21), 친환경 조정지역(빈도14), 수경시설(빈도13), 산림지역(빈도27), 단풍명소(빈도23), 정원 및 농원(빈도17), 보호수(빈도14), 동물농장(빈도23), 야생동물 서식지(빈도13), 캠핑장(빈도24), 해돋이 및 해넘이 장소(빈도24), 자연관찰 산책로(빈도20), 우수경관 조망장소(빈도15), 농촌공원(빈도13), 박물관(빈도19), 기념장소 및 기념비(빈도17), 전통마을(빈도15), 자연친화 공간(빈도14), 친환경 및 환경교육 공간(빈도19), 마을 안내지도 및 안내판 설치장소(빈도15), 푸드뱅크(빈도 16), 친환경 모임 및 기관(빈도12), 병원(빈도16), 공중화장실(빈도16), 유명식당 및 카페(빈도15) 등으로 36개 자원에 대한 총합 빈도수는 591(52.5%)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가로수길(빈도28), 산림지역(빈도27), 생산물 직판장(빈도24), 캠핑장(빈도24), 동물농장(빈도 23), 단풍명소(빈도23), 유기농 직판장(빈도22), 생태길 및 그린웨이(빈도22), 해안 및 강변 (빈도21), 대중교통(빈도21)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5. 선호하는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종합 빈도 분석표

종합		빈도		
자원구분				
대분류	중분류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지속가능한 삶	녹색경제	292 (25.9%)	115 (10.2%)	1/24→4/22→3/17→5/15→2/12
	기술과 디자인		93 (8.27%)	6/18→8/12
	이동수단		84 (7.47%)	6/21→10/14
자연	대지와 물	473 (42.1%)	142 (12.6%)	11/28→5/22→1/21→10/14→2/13
	식물		118 (10.5%)	1/27→7/23→4/17→2/14
	동물		70 (6.23%)	10/23→1/13
	야외활동		143 (12.7%)	9,12/24→4/20→11/15→1/13
문화와 사회	문화적 특성	359 (31.9%)	137 (12.2%)	2/19→18/17→11/15→16/14
	정보환경		71 (6.32%)	1/19→4/15
	사회정의와 운동		66 (5.87%)	7/16→2/12
	공공사업과 주요지형지물		85 (7.56%)	7,13/16→12/15
계		1,124	1,124	

주1) 소분류에서 3/30 표현에서 3은 자원명목, 30은 빈도수를 나타냄

주2) 자원명목은 부록3을 참조

4.3 농촌마을 그린맵 작성

우선, 앞선 설문조사를 통해 도시민이 선호하는 농촌마을 자원의 내용을 리뷰하고, 관광 농촌 마을을 선정하여 다음과 같은 순서로 농촌마을 그린맵을 작성해 보았다.

첫째, 해당 마을의 기초적인 정보를 알아보기 위해 시·군의 홈페이지 혹은 정보화 마을 홈페이지(www.invil.org)를 통해 해당 마을의 위치, 면적, 인구수, 그리고 마을의 연혁과 특징, 특산물, 역사와 문화를 상세히 알아보았다. 또한, 한국농어촌공사에서 지원하는 농어촌 체험관광포털 웰촌(www.welchon.com)을 통해 마을의 상세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

둘째, 해당 마을을 방문하기 전에 지도와 위치, 교통을 파악하고, 마을 이장과 혹은 사무장, 발전 추진위원장 등과 방문 목적과 시간을 정하고 해당된 일자에 마을을 방문하였다. 마을을 방문하여 마을의 특징과 마을의 소개를 받고, 마을 대표자에게 인지도(약도)를 통해 마을의 공간 구조를 파악하였다. 여기서 인지도(認知圖)란 “인간은 대규모의 물리적 환경을 지각과 인지하는 과정에서 과거의 경험, 개인적 특성에 따라 공간을 표현하게 되는데 이것을 인지도(cognitive map)라고 한다.” 린치(K. Lynch)는 인지도를 통해서 도시환경의 주된 요소를 추출하여 도시공간 설계분야에 획기적인 공헌을 하였다(임승빈, 1991). 인지도는 많이 수집하여 공통적 요소를 추출하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본 조사에서는 3개 이상의 인지도를 마을 주민을 통해 획득하고 이를 그린맵 제작의 기초자료로 활용하였다.

셋째, 기초적인 정보를 파악한 후, 설문지 분석결과 나온 내용을 참조하여, 그린맵에서 표현해야 할 자원과 관광객이 선호하는 농촌 어메니티 자원을 숙련된 4명의 조사원들이 마을 곳곳을 조사하며 준비해 간 마을지도에 기입을 하도록 하였다.

넷째, 획득한 인지도와 자원 조사도를 중심으로 연구실에서 그린맵을 제작하였다. 이때 지도의 형태는 설문지 분석결과에서 나온 일반인이 선호하는 위성지도와 인지도에 근거한 인지지도를 혼합한 형태로 구성하였으며, 조사된 농촌 어메니티 자원은 지속가능한 삶(노란색), 자연(초록색), 문화와 사회(분홍색) 부문으로 나누어 가독성을 높이고, 농촌마을의 자원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배치하였다. 이를 다시 마을의 대표와 검토하고 수정 보완하여 최종 결과물(그린맵)을 제작하였다. 지금까지의 작성 흐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그림 4. ; 표 6. 참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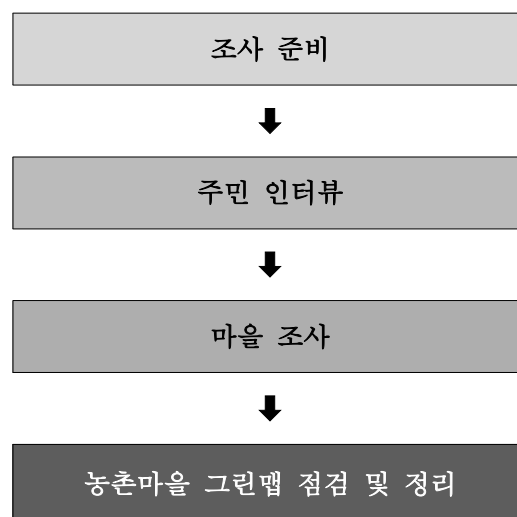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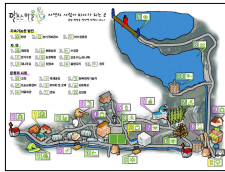


그림 4. 농촌마을 그린맵 작성 순서

표 6. 농촌마을 그린맵 작성시 준비 사항

단계	1단계 조사준비	2단계 주민 인터뷰	3단계 마을 조사	4단계 그린맵 제작
사진				
준비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마을현황 ▪ 마을대표 연락 ▪ 교통과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도 ▪ 마을자원도 ▪ 마을자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그린맵 자원표 ▪ 사진촬영 ▪ 자원조사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지도 ▪ 자원조사도 ▪ 주변현황도

1) 바리실 마을 그린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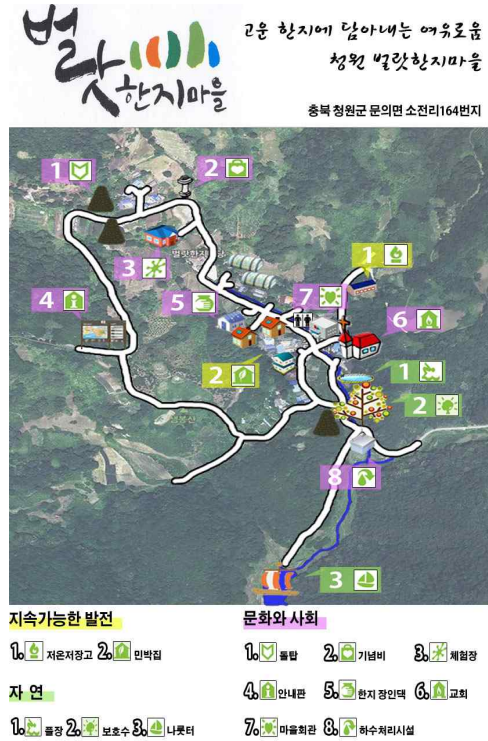
바리실 마을의 농촌 어메니티 자원은 농촌소득사업과 더불어 비교적 많이 창출되어 있으나 도시화의 영향으로 개발이 빨리 진행되어 어메니티 자원의 소실이 급속히 진행되어 갈 것으로 판단된다. 주민의 소득도 높아 개발의 수요는 높다. 조사된 그린맵을 제작을 통해 마을의 자원을 파악해 본 결과, 자연 부분의 자원은 매우 부족하며, 지속가능한 발전 부분과 문화와 사회 부분의 자원은 상대적으로 많이 도출되었다(그림 5. 참조).

2) 알프스 마을 그린맵

알프스 마을의 농촌 어메니티 자원은 농촌개발사업과 더불어 활발히 창출되어 있다. 매년 20만명 이상의 관광객이 방문하고 있어, 관광소득 또한 높아 성공하는 농촌마을로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너무 소득위주의 사업으로 농촌다움은 사라져가고 있는 것이 문제이다. 조사된 그린맵 제작을 통해 마을의 자원을 파악해 본 결과, 도시민이 선호하는 자연 부분의 자원은 많이 조사되었으나 급속한 개발로 인한 농촌다움은 많이 사라졌다. 그러나 문화와 사회 부분의 자원은 많이 도출되었다(그림 5. 참조). 특히, 한옥 제작기술자가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

3) 별랏 한지마을 그린맵

별랏 한지마을은 대청호 상수원 보호구역에 위치한 산지로 둘러싼 마을로서 특징을 지니고 있다. 비교적 소규모 산촌 마을이라 농지의 부족에 따라 농가소득이 매우 적다. 그러나 깨끗한 청적의 이미지를 지니고 있어 도시민이 힐링과 휴식을 목적으로 찾을 만한 가치를 지닌 농촌마을이다. 조사된 그린맵 제작을 통해 마을의 자원을 파악해 본 결과, 자연 부분의 자원은 매우 부족하나, 문화와 사회 부분의 자원은 많이 도출되었다(그림 5. 참조). 한편 이 마을에는 한지 장인이 존재한다.



바리실 마을 그린맵

별랏 한지마을 그린맵



알프스 마을 그린맵

그림 5. 농촌마을 그린맵

5. 결론

5.1 결과 및 고찰

본 연구는 농촌의 중요성을 파악하고 농촌의 소득을 높이고 살기 좋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서 농촌관광을 활성화시켜야 한다는 기치 아래, 도시민이 농촌마을을 쉽게 접근하기 위한 매체로써 농촌마을 그린맵을 제작하고 그 시사점을 언급하는데 목표를 두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도시민은 일반적으로 자연 부분의 자원(빈도473)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그 다음으로 문화와 사회 부분의 자원(빈도 359), 지속가능한 삶 부분의 자원(빈도 292)으로 나타났다. 자연 부분에서는 야외활동 부분의 자원(빈도143) 그리고 대지와 물 부분의 자원(빈도142), 식물 부분의 자원(빈도118)이 많이 선택되었으며, 문화와 사회부분에서는 문화적 특성 부분의 자원(빈도137), 그리고 지속가능한 삶 부분에서는 녹색경제 부분의 자원(빈도115)을 많이 선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부 자원 별로 살펴 보았을 때, 가로수길(빈도28), 산림지역(빈도27), 생산물 직판장(빈도24), 캠핑장(빈도24), 동물농장(빈도23), 단풍명소(빈도23), 유기농 직판장(빈도22), 생태길 및 그린웨이(빈도22), 해안 및 강변(빈도21), 대중교통(빈도21) 등에 대한 매우 관심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 도시민 대부분의 연령대에서 자연 부분 자원에 대한 선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어메니티 자원을 다양하게 선택하고 있었으며, 이러한 자원에 대한 선택 빈도수는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20대는 WIFI 지원장소(빈도8), 푸드뱅크(빈도8) 등에 높은 관심이 있는 것으로, 30대는 생태길 및 그린웨이(빈도7), 산림지역(빈도7) 등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40대는 가로수길(빈도9), 해안 및 강변(빈도7), 야생화 재배지(빈도7), 단풍명소(빈도7), 동물농장(빈도7), 자연관찰 산책로(빈도7) 등에 높은 관심을 보였다. 그리고 50대는 산림지역(빈도10), 캠핑장(빈도9), 박물관(빈도9), 동물농장(빈도9), 마을안내지도 및 안내판 설치장소(빈도9), 대중교통(빈도8), 가로수길(빈도8), 자연관찰 산책로(빈도8), 공중화장실(빈도8), 위험구역(빈도7), 생태길 및 그린웨이(빈도7), 해돋이 및 해넘이 장소(빈도7), 기념장소 및 기념비(빈도7) 등에 관심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3) 남녀 집단도 역시 자연 부분의 자원에 대한 선택을 많이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자 집단은 유기농 직판장(빈도11), 산림지역(빈도11), 해돋이 및 해넘이 장소(빈도11), 단풍명소(빈도10) 등에 대한 관심이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여자 집단은 가로수길(빈도19), 산림지역(빈도16), 동물농장(빈도16), 생산물 직판장(빈도15), 대중교통(빈도15) 등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일반인은 인지도도를 선호(70%)하고 있었으며, 그 다음으로 위성지도(30%)를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농촌마을 그린맵 제작시 인지도에 근거한 인지도도와 위성지도를 조합하는 형태의 그린맵을 제작하는 것이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5) 농촌마을 그린맵을 제작하기 위해서 4단계를 나누어 제작을 시도하는 것이 타당하리라

생각된다. 우선 마을현황을 조사하고 다음과 네이버에서 위성지도를 획득한다. 다음 마을대표와 통화한 후 마을을 방문한다. 주민의 도움으로 인지도를 작성하고, 그린맵 자원에 근거하여 마을의 자원을 조사한다. 이후 위성지도와 인지도에 근거한 인지지도를 혼합한 형태의 그린맵을 작성하고 마을 주민에게 피드백을 받는다. 검토 후 그린맵의 작성을 완료한다.

5.2 제언 및 의의

연구의 진행을 통해서 얻어진 제언과 의의 말하면 다음과 같다.

1) 농촌마을 그린맵을 통한 농촌마을 홍보가 농촌마을의 문제를 만사형통으로 풀어낼 것으로 생각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러한 조그만 노력이 마을 가꾸기 혹은 마을 진단의 기초적인 도구로 주민들에게 각인된다면 마을 발전과 애향심을 일으키는 기초적 단서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2) 농촌마을 그린맵 제작을 위해 제시한 자원요소를 설문조사한 결과, 남녀 집단의 차이보다는 연령별 차이가 비교적 뚜렷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따라서 이를 사용하면 농촌마을을 방문한 다양한 연령대별 관광객과 남녀별 관광객에게 효율적인 관광 체험루트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농촌마을 그린맵 제작을 위해 농촌주민을 면담한 결과, 대부분의 주민들이 농촌 자원의 중요성과 가치를 인식하지 못하고 있었으며,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보존 및 보전 측면에서 도시민의 입장과 상반되어 농촌마을의 어메니티 자원은 많이 사라질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농촌 주민을 대상으로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중요성을 교육하는 것과 더불어 재정지원을 통한 보존 대책이 시급하다.

본 연구를 통해 나온 결과물은 차후 농촌마을의 개발을 위한 농촌계획 및 환경계획의 밑바탕으로 적용 가능하리라 생각하며, 농촌마을 그린맵 제작을 통해 해당 농촌마을 홍보와 녹색관광을 통한 소득향상 그리고 농촌마을에 대한 애향심 고취를 통한 농촌주민의 삶의 질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끝).

참고문헌

- 김대식 등, 2005, 농촌관광기반의 지속가능한 마을정비 유형의 설정, 농촌계획 11(1), 45-53.
- 김승환 등, 쾌적한 도시환경의 창출을 위한 도시 어메니티 구조의 해석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 18(4): 101-115.
- 김영준, 2006, 농촌정책과 농촌경관, 한국경관협의회 공개세미나 ('06.6.23) 발제자료.
- 남지호, 2010,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에 대한 경제적 가치평가, 고려대학교석사학위논문.
- 박창석 등, 2002, 농촌 어메니티에 기초한 농촌자원 중요도 평가 및 순위적 관계 분석,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지 국토계획 37(1), 21-35.
- 오현석 등, 2002, 어메니티와 지역개발, 서울: 새물결.
- 이상문, 2006, 농촌 어메니티 자원의 발굴과 산업화계획,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편), 「농촌계획의 이론과 실제」, 서울: 보성각.
- 임승빈, 1991, 경관분석론, 서울: 서울대학교출판부.
- 전남대학교 지역개발연구소, 2005,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의 발전방향연구.
- 조순재, 2003, 농촌 어메니티를 활용한 마을개발 모형. DDA대응 농촌경제 활성화와 어메니티자원개발, 심포지엄 발표자료, 161-184.
- 최수명, 2001, 어메니티 지향 시대의 농촌정비 방향, 농어촌과 환경 73(12), 51-65.
- 황기원·황윤혜, 2001, 그린맵 작성 및 활용에 관한 연구, 한국조경학회지 29(1), 113-123.
- Diamond, D.B. & Tolley, G.S.. 1982. The Economics of Urban Amenities, Academic Press.
- OECD, 1999, Cultivating Rural Amenities : An Economic Development Perspective.
- <http://www.greenmap.kr>

부록

부록1

그린맵 아이콘

지속가능한 삶									
녹색 경제									
생산지/지역 상품	건강한 식량	친환경/지속가능 농업	유기농/지역생산 식품	친환경 상품	녹색기업	녹색상업	지역사업	중고 상품/시장	
공정거래	사회적책임 투자	사회관계사업	녹색관광 자원	재사용	재활용	대여/공유	수리점		
기술과 디자인									
태양에너지	풍력에너지	수력에너지	수자원재활용	지열에너지	친환경 건물	녹색지붕	저가건축물	화물화차 지역	
혁신 조사 및 연구 지역	친환경 기술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절약	홍아절약	친환경 청소				
이동수단									
자전거 관련시설	자전거도로 (도로)	자전거도로 (오프로드)	자전거 보관소	보행자 우선 지역	휠체어 이동가능 지역	대중교통	경전철/ 급행버스	수상교통	
대체 연료/자동차	주차 및 환승시설	교통혼잡 지역	주유구역						
위험요소와 도전과제									
황폐지	대기오염	수질오염	쓰레기투기	오염지역	재개발지역	피해위험 지역	서식지위협 지역	상업피괴 지역	
기후변화 지역	재난지역	폐단구역	유해환경 지역	소음공해	공항	석유/가스 시설	방사능시설과 폐기물지역	채광지역	
자연									
땅과 물									
해변/강변 공원	수경시설	습지대	식수원	생태길	지질학적 특성	친환경 다차량/보행 지역	경비/자연 지역	미래차개발 지역	
친환경 조경	가로수길								
식물									
천연/ 자연지역	보호수	자연림/ 자생식물	정원	마을공동체공원 (Community Garden)	분꽃밭소	단풍명소	재생식물	식물수집 장소	
동물									
주요동물 서식지	야생동물 서식지	방사선 서식지	해안 서식지	수중 서식지	야생동물생태/ 동물원	알락/보호 서식지	곤충 관찰지역	조류/야생동물 관찰지역	
물새연못	동물농장	일대 도래지역							
야외 활동									
공원/ 휴양지	공공장소/ 공원	아이스루프 지역	녹색공원/ 자연휴양지역	수영	카누/카약	스포츠 경매지	스케이팅보드	등산지 놀이장소	
눈놀이 장소	캠핑장	우수경관 조망명소	해돋이/해넘이 장소	천체관측 장소					
문화와 사회									
문화적 특성									
문화공간	박물관	예술공간	문화공연	지역음악	민간의 장소	장인/ 예술가연실	전통생활방식	역사적 장소	
유적지	한옥마을	다문화 공동체	공동체 센터	어린이 문화공간	아트선 문화공간	자연친화 공간	대체의학 자원	기념장소/ 기념비	
정보환경									
친환경 정보	친환경 관광	녹색학교	광광도시관	그린맵 비지날소	특집/친환경 미디어	온라인 정보	무선망 (WiFi)	호텔도 주소	
친환경 인증	특별 장소	에너지절 감소							
정의와 운동									
생태문화의 기원	문화 모임/기관	주요 기관/단체	자원봉사활동 장소	환경 전문가	사회복지	푸드뱅크	투표장소	자유활동대	
부담교육	지속가능하지 않은 토지사용	주택고밀화	반민가	난민/ 주거지역					
공공사업과 주요지형지물									
하수 처리장	에너지 공공시설	폐기물 처리장	매립지	소각로	관공서	병원	학교	종교기관	
보지	안개소	주요시설	중공 회합소	감각/ 주요시설	군사지역	주요지형지물			

부록2

그림 맵의 사례



부록3

농촌마을 그린 맵 제작을 위한 설문지

귀하가 농촌마을을 방문하였을 경우 있었으면 하는 시설이나
 농촌마을 안내지도에 나타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면
 20가지 정도 체크해 주십시오.....

■ 지속가능한 삶

● 녹색경제

- 01.() 생산물 직판장(화초, 공예품, 제과, 제빵, 와인, 치즈 등)
- 02.() 건강식 제공 식당
- 03.() 친환경 농업 장소
- 04.() 유기농 직판장
- 05.() 친환경 상품생산 및 기술전수 장소(음식, 공예, 전통주 등)
- 06.() 녹색기업
- 07.() 녹색상점
- 08.() 지역의 고유사업장
- 09.() 중고시장 및 상점
- 10.() 사회적 기업
- 11.() 협동조합
- 12.() 녹색관광자원
- 13.() 재활용 지역
- 14.() 대여 및 공유 점포(자전거, 탈것, 원예도구, 파티도구 등)
- 15.() 수리 점포(자전거, 기구, 신발, 생필품 등)

● 기술과 디자인

- 01.() 태양 에너지 설치장소
- 02.() 풍력 에너지 설치장소
- 03.() 수력 에너지 설치장소
- 04.() 수자원 재활용 지역(저류지, 수질정화연못 등)
- 05.() 지열 에너지 설치장소
- 06.() 친환경 건물
- 07.() 옥상녹화 건물
- 08.() 녹색건물(짚, 흙, 나무 등)
- 09.() 퇴비 처리장
- 10.() 학술조사 및 연구지역
- 11.() 친환경기술 적용 장소(지속가능한 기술, 청정기술, 바이오매스 발효기술 등)

- 12.() 온실가스감축 장소(이산화탄소, 메탄, 이산화질소, 오존 등)
- 13.() 에너지 저감사업장
- 14.() 종이 절약장소(디지털서류 및 양면복사 등)
- 15.() 무농약 및 무독성 제품 이용 장소

● 이동수단

- 01.() 자전거 수리 및 대여소
- 02.() 자전거 도로
- 03.() 자전거 보관소
- 04.() 보행자 우선지역
- 05.() 휠체어 이동 가능지역
- 06.() 대중교통
- 07.() 경전철 및 급행버스(BRT) 정류장
- 08.() 수상교통
- 09.() 대체 연료 혹은 전기자동차 충전소
- 10.() 주차 및 환승시설
- 11.() 교통 혼잡지역
- 12.() 위험 구역

■ 자연

● 대지와 물

- 01.() 해안 및 강변
- 02.() 수경시설(분수, 폭포, 연못 등)
- 03.() 습지
- 04.() 식수원, 저수지
- 05.() 생태길(계곡, 언덕 등) 및 그린웨이(조깅코스, 자전거길 등)
- 06.() 주요 지형지물(산, 초원, 모래언덕 등)
- 07.() 환경보존(보호)지역
- 08.() 환경복원(개발)지역
- 09.() 미래개발지역
- 10.() 친환경조경지역
- 11.() 가로수길

● 식물

- 01.() 산림지역(국립공원, 자연공원, 국공유림 지역 등)
- 02.() 보호수
- 03.() 지역 고유식물
- 04.() 정원 및 농원
- 05.() 마을공동체 공유지
- 06.() 야생화 재배지

- 07.() 단풍명소
- 08.() 자생 식물원
- 09.() 야생허브 및 과일 채집 장소

● 동물

- 01.() 야생 동물 서식지
- 02.() 양서류 서식지
- 03.() 해안 서식지
- 04.() 수중생물 서식지
- 05.() 야생동물 센터
- 06.() 야생동물 재활 서식지
- 07.() 곤충관찰 지역
- 08.() 조류관찰 지역
- 09.() 조류관찰 연못
- 10.() 동물농장(닭, 말, 토끼, 가축 등)
- 11.() 철새도래 지역

● 야외활동

- 01.() 농촌공원(운동장, 조깅코스 등)
- 02.() 공공장소 및 광장
- 03.() 야외 스포츠 지역(카누, 카약, 암벽 등반 등)
- 04.() 자연관찰 산책로(하이킹, 산책로 등)
- 05.() 수영장 및 물놀이 장소
- 06.() 항해 및 보트 정박지
- 07.() 스키장 및 스노모빌 장소
- 08.() 강아지 놀이장소
- 09.() 캠핑장
- 10.() 스케이트보드 및 롤러스케이트장
- 11.() 우수경관 조망장소
- 12.() 해돋이 및 해넘이 장소
- 13.() 별자리 관측 장소

■ 문화와 사회

● 문화적 특성

- 01.() 문화발생 장소(음악, 역사, 전설 등)
- 02.() 박물관
- 03.() 예술 공간(환경예술, 대지예술, 자연예술 등)
- 04.() 문화 공연공간
- 05.() 지역 음악공간
- 06.() 만남(모임)의 장소

- 07.() 장인 및 예술작업실(가게, 쇼룸 포함)
- 08.() 전통생활방식 재현장소
- 09.() 역사장소(사적지 등)
- 10.() 인류문화 유적지
- 11.() 전통마을
- 12.() 신앙공동체
- 13.() 마을회관
- 14.() 어린이놀이 장소
- 15.() 실버놀이 장소
- 16.() 자연친화 공간
- 17.() 대체의학 장소(스파, 요가, 힐링, 약초 등)
- 18.() 기념장소 및 기념비

● 정보환경

- 01.() 친환경 및 환경교육 공간
- 02.() 녹색학교
- 03.() 공공도서관
- 04.() 마을안내지도 및 안내판 설치장소
- 05.() 환경프로그램교육장소
- 06.() 와이파이(wifi) 지원 장소
- 07.() 인터넷 지원 장소
- 08.() 환경오염도 측정 장소
- 09.() 친환경인증장소(논, 농가 혹은 과수원 등)
- 10.() 예약 필수 장소

● 사회정의와 운동

- 01.() 환경단체
- 02.() 친환경모임 및 기관
- 03.() 비영리기구(사회적 기업 등)
- 04.() 자원봉사활동장소
- 05.() 환경전문가의 모임장소
- 06.() 사회복지 제공장소
- 07.() 푸드뱅크(음식제공 장소 등)
- 08.() 투표장소
- 09.() 시위장소나 지역
- 10.() 부당고용사업장
- 11.() 지속가능하지 않은 토지사용지역(골프코스, 주차장, 공장형 축산농장, 난개발지역 등)
- 12.() 고급주택 지역
- 13.() 빈민가
- 14.() 난민지역

● 공공사업과 주요 지형지물

- 01.() 하수처리장
- 02.() 에너지공급시설
- 03.() 폐기물처리장
- 04.() 매립장
- 05.() 소각장
- 06.() 관공서
- 07.() 병원
- 08.() 학교
- 09.() 종교기관
- 10.() 공동묘지
- 11.() 커뮤니티센터
- 12.() 유명식당 및 카페(레스토랑, 양조장 포함)
- 13.() 공중화장실
- 14.() 교도소 및 구치소
- 15.() 군사지역

■ 대단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귀하의 신상에 대한 질문입니다.

- 1. 귀하의 성별은? 남자(), 여자()
- 2. 귀하의 연령대는? 20대(), 30대(), 40대(), 50대()

감사합니다.

혜천대학교 도시환경조경과 올림

부록4

선호하는 농촌마을 그린 맵 형태 조사

혜천대학교 도시환경조경과

귀하가 농촌마을을 방문하였을 경우 사용하기 좋은 형태의 지도를 체크하여 주십시오.....



지도(1) 위성 지도 -----()



지도(2) 일반 지도 -----()



지도(3) 약도 지도 -----()

감사합니다.

혜천대학교 도시환경조경과 올림